

2017. 4 국가직 사회 기출 해설

1번 정답 ③

[해설]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은 1947년 3월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의회에서 선언한 미국 외교정책에 관한 원칙으로서 그 내용은 **공산주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자유와 독립의 유지에 노력하며, 소수의 정부지배를 거부하는 의사를 가진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하여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이 원칙에 따라 그리스와 터키의 반공 정부에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원조를 했다.

① 베스트팔렌 조약(1648)은 30년 전쟁(마지막 종교적 대전쟁, 근대국가들의 첫 전쟁)을 종식시키고 주권 국가를 국제체제의 가장 지배적 형태로 자리잡게 한 조약이다.

④ 미국의 조지 H. W. 부시 대통령과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1989년 12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지중해 몰타에서 가진 정상회담이다. 회담을 끝낸 두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동서가 냉전 체제에서 새로운 협력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핵무기 감축 등 군축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에 진전을 보았으며, 지역분쟁 해결원칙에 합의했음을 밝혔다. 또한 미국은 소련의 경제개혁정책에 광범위한 지원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2번 정답 ②

[해설]

근대 시민혁명기(17·18세기)	시민혁명 이후(19세기)	현대(20세기)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에의 자유 (국가를 향한 자유)	국가에 의한 자유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참정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생존권, 생활권적 기본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공무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 3권, 환경권, 혼인·가족생활·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소극적 권리	능동적 권리	적극적 권리
자유주의	자유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제한된 시민의 행사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 차티스트 운동으로 보통선거 확립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사회적 기본권 규정(1919)
자유방임주의, 소극 국가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적극 국가관 수정 자본주의, 혼합 경제

3번 정답 ③

[해설]

국제 사회를 보는 관점이 출제되었다.

(가)는 이상주의의 관점, (나)는 현실주의의 관점이다.

③ (가), (나) 모두 국가 안보를 중시한다.

(가)이상주의의 관점에서 주장하는 집단안보 전략은 국제정치질서를 국가들이나 동맹국들 사이에 존재하는 세력균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침략자에 대하여 구성된 단일 집단의 압도적 힘의 우위에 기초하여 추구함으로써 국제정치에서 전쟁가능성을 제거하고 영구평화를 실현하려는 시도이다. **집단안보체제 구상에 관한 한 이상주의는 현실주의만큼 국제정치에서 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힘의 집중을 통해서만 전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

(나)현실주의의 관점에서 주장하는 **세력균형 전략은 국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 간 동맹과 세력 균형을 통한 전쟁의 방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 ① (가)이상주의의 관점은 국제 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을 중시한다. 만약 침략행위가 발생될 경우 침략국 이외의 체제나 모든 국가들이 침략국에 대해 효과적 집단조치(정치,외교,군사)를 취함으로써 체제내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를 침략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거한다는 집단안보 개념을 중시한다.
- ② (나)현실주의의 관점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간의 관계를 토마스 홉스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파악한다.
- ④ (나)현실주의의 관점은 국제 평화 방안으로 동맹과 세력 균형을 강조한다.

*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견해

1. 이상주의: Utopianism, Idealism

- 인간세상에서 전쟁의 소멸과 영구평화는 가능하다. (모든 국가들이 민주주의가 된다면 세계의 평화는 가능하다.)
- 국제법, 외교,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며 인간성의 선함을 믿는다.
- 훌륭한 국제기구는 평화의 조건이다.
- 모든 나라들이 자유무역을 한다면 국제평화는 가능하다.
- 전쟁은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다.
- 군비축소, 외교 협상, 평화 선언 등을 통해 평화는 가능하다.

2. 현실주의: Realism, Real Politik

- 국가들은 힘을 추구하고 국가 이익에 의거해서 행동하지 도덕적 원칙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는다.
- 2차 대전 이후 오늘날까지 국제정치학의 압도적인 주류 이론
- 인간성의 선함을 믿지 않는다.
- 인간의 권력 욕구는 본능적이다.
- 국제사회는 무정부적 속성을 가지며 비도덕적 속성을 가진다.
- 국가들은 저마다 자신의 생존에 급급할 수 밖에 없다.
- 생존은 최고의 국가이익 그래서 국제정치는 권력정치(Power Politics), 힘의 정치다.
- 국가들은 모두 국가이익을 추구한다. 국가이익이란 국가의 생존, 경제발전, 권력확보, 자존심의 확보를 의미한다.

	이상주의	현실주의
학자	존 로크, 칸트, 스피노자, 맹자, 장자크 루소, 로버트 코헤인, 마이클 도일, 프랜시스 후쿠야마, 조지프 나이, 우드로 윌슨	투키디데스, 토마스 홉스, 니콜로 마키아벨리, 카아(E. H. Carr), 한스 모겐소, 케네스 월츠, 헨리 키신저
국제관계와 국가	국가 외에 이익집단,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등 비국가적 행위자 역시 주요 행위자로 인식함.	국가는 유일한 주요 행위자 [국가중심주의][국가의 단일성]
국가의 합리성	국가는 분절된 행위자로 비합리적일 수 있음.	국가는 통합된 합리적 행위자 [국가의 합리성]
무정부상태와 국가	무정부상태의 영향 부정	무정부상태는 국가의 선호와 행동에 영향을 줌
국제기구와 규칙	협력에 도움	협력에 대한 도움 부정
국가간 협력 전망	낙관적	비판적
분쟁 원인	인간의 선한 본성→ 이성적 대화와 협력 → 분쟁은 잘못된 제도로 인한 것	인간이 이기적 본성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외교 정책→ 갈등과 분쟁
해결 방안	국제기구, 국제법, 국제 규범을 통한 제도의 개선	국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 간 동맹과 세력 균형을 통한 전쟁의 방지[안보중심주의]
장점	인간 본성에 대한 신뢰, 도덕과 규범을 통한 평화 추구	국제 관계에서 힘의 논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적 설명
한계	인간 본성에 대한 낙관적 기대(현실과의 괴리), 치열한 경쟁과 갈등이 존재하는 국제관계, 국제법과 국제 규범의 실효성 부족	세력 균형이 평화를 보장하지 못함(군비 경쟁 과열), 국제 사회에는 다양한 협력과 국제 기구, 비정부 기구의 활동의 존재한다는 사실
관련 개념	집단안전보장 전략 다수 국가가 상호간 전쟁을 금지하고 만약 침략행위가 발생될 경우 침략국 이외의 체제나 모든 국가들이 침략국에 대해 효과적인 집단조치(정치,외교,군사)를 취함으로써 체제내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를 침략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거한다는 안보개념으로 가상적국을 상정하지 않음(예: 국제연합)	세력 균형 전략 다수의 국가들 간에 세력의 균형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관계 국가들의 국가적 이익의 추구를 용이하게 하려는 국제 정치상의 원리 또는 정책. 세력의 균형을 창출해 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음. 각국이 자국만의 판단에 따라 세력을 증강하고 그것에 의해 대립국과의 균형을 창출하는 방법도 있으며 몇몇 국가가 군사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균형을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음

*** 신자유주의**

- 현실주의처럼 국가를 국제정치의 중요한 행위자로 인식
- 국가들은 명시적·묵시적 국제제도의 도움에 의해 국가이익을 재정의하고 그 결과 국가간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자유주의 기본논리를 수용함.
- 신자유주의는 이기적인 국가관계속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며, 이 협력을 위해 국제제도 혹은 레짐이 중요하다는 것임(이러한 점에서는 자유주의자들과도 맥을 같이 함).
- 국제정치의 제도화가 각 국가간의 협력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국가간의 협력과 불화는 제도적 변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인식함.

*** 자유주의, 현실주의, 신자유주의 비교**

- 현실주의: 무정부 상태속의 갈등
- 자유주의: 상호의존속의 협력
- 신자유주의: 무정부 상태속의 협력

1. 전통적 안보개념(Conventional Security):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생존을 보전하는 것으로서 통상 군사력 중심의 국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협의의 안보와 동일)

2. 포괄적 안보개념(Comprehensive Security)

냉전종식이후 안보위협이 다양해지고 국가간 상호 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안보의 고려 영역이 확대되어, 정치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환경.자원.마약.인권.난민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안보개념으로 확장(광의의 안보와 동일)

4번 정답 ③

[해설]

권리장전은 명예혁명의 결과 이루어진 인권선언이다.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와 가톨릭 신앙에 반대하여 일어난 명예혁명은 1688년 12월 23일 국왕이 프랑스로 도망하고, 그 이듬해 2월 13일 국민협의회가 윌리엄 3세를 국왕으로 추대함으로써 무혈혁명으로 끝났다. 이때 의회는 새 왕을 추대하면서 왕관과 함께 권리선언(權利宣言)을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았고, 이 선언을 토대로 89년 12월 16일 '신민(臣民)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계승을 정하는 법률'이라는 이름의 의회제정법이 공포되었는데, 이것이 곧 권리장전이다.

주요 내용은 의회의 동의 없이 왕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이나 그 집행 및 과세의 위법, 의회의 동의 없이 평화시에 상비군의 징집 및 유지의 금지, 국민의 자유로운 청원권의 보장, 의원선거의 자유 보장, 의회에서 언론 자유의 보장, 지나친 보석금이나 벌금 및 형벌의 금지 등이었다.

이러한 권리장전은 영국의 의회정치 확립의 기초가 되고, 영국의 절대주의를 종식시켰다는 점에 영국 헌정상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미국의 독립선언, 버지니아 권리장전, 매사추세츠 권리선언 등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들을 통하여 다시 프랑스 인권선언에도 영향을 끼쳤다

5번 정답 ④

[해설]

	양당제 (영·미)	다당제 (프·독·일·이·한국)
특징	2개 정당이 교대로 정권 담당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정권 획득	정당이 3개 이상 주로 연립내각 구성
장점	정국 안정 책임 정치 [강력한 정책 추진 가능] 평화적 정권 교체 용이 선거인의 정당 선택 용이	국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 용이 소수자의 이익 보호 정당 간 대립시 제3자가 중재 용이 선거인의 정당 선택 범위가 넓음
단점	국민의 다양한 의견반영 곤란 다수당의 횡포와 소수이익 보장 곤란 양당간 정국의 극한 대립 우려	정국의 불안정 우려 강력한 정책 실현 곤란 정책보다는 인물본위의 정치가 되기 쉬움 책임 소재 불분명

6번 정답 ③

[해설]

A는 농촌, B는 도시이다.

- ① 농촌[A]이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하다.
- ② 농촌[A]이 주로 비공식적 수단에 의해 사회 통제가 이루어진다.
- ③ 농촌[A]이 가정과 직장의 분리 정도가 낮다.
- ④ 농촌[A]보다 도시[B]에서 2차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7번 정답 ②

[해설]

(가)는 차별접촉이론, (나)는 아노미 이론이다.

- ② 차별접촉이론(가)은 범죄는 학습된다고 주장하므로 맞는 지문이다.
- ①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를 일탈 행위의 원인으로 파악하는 것은 아노미 이론이다.
- ③ 특정 행위를 일탈 행위로 규정하는 사회적 반응에 주목하는 것은 낙인 이론이다.
- ④ 일탈행위의 원인으로 정보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강조하는 갈등론이다.

8번 정답 ①

[해설]

- ② ㉠은 이익 사회이다.
- ③ ㉡은 甲의 역할(역할기대)에 대한 평가 결과가 아니라 **역할행동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 ④ ㉢ 지문에서 甲이 가족에 소속한다는 느낌, '우리 가족'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지만 현재 내집단이다.

* 내집단과 외집단 : 소속감을 기준으로 분류(섬너)

내집단 (우리집단)	한 개인이 그 집단에 소속한다는 느낌, '우리' 라는 공동체 의식 강조
외집단 (타인집단)	이질감을 느끼거나, 적대감이나 공격적인 태도까지 가지게 되는 집단

9번 정답 ①

[해설]

- ① 서구 중심적 사고라고 비판을 받는 이론은 진화론이므로 순환론은 아니라고 해야 맞다.
- ② B가 진화론이라면 (나)가 아니라 (가)에는 “사회 변동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로 물어봐야 적절하다.
- ③ (가)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는가”이면 A가 아니라 B가 진화론이라고 답해야 한다.
- ④ (나)가 “사회 변동 과정에서 문명이 퇴보할 수 있는가”이면 B가 아니라 A가 순환론이라고 답해야 한다.

10번 정답 ①

[해설]

- ㄴ. 변수 조작(실험 처치)을 가한 집단이 실험집단이고, 변수 조작(실험 처치)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비교하는 집단이 통제집단(비교 기준이 되는 집단)이다. A는 실험 처치(X)를 했으므로 실험 집단이고, B는 실험 처치(X)를 하지 않았으므로 통제 집단이다.
- ㄷ. (가)의 연구 결과는 甲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만 실험하였으므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

11번 정답 ④

[해설]

- ④ 환부거부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된 경우는 재의결시 법률로서 확정된다.

12번 정답 ④

[해설]

강제연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찰관의 강제연행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그러나 적법한 공무집행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예 : 강도를 폭행한 경우)

13번 정답 ④

[해설]

① 도지사의 경우에도 단심제가 적용된다.

단심제 : 대통령, 국회의원, (특별, 광역)시·도지사, 광역비례대표의원의 선거재판, 비상계엄하의 일정 범죄(단, 사형 선고시는 예외)
2심제 : 지방의회의원(광역비례대표의원 제외),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의원의 선거재판

② 행정소송은 3심제가 적용된다.

③ 각급 법원의 **모든** 상고는 대법원이 심판한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도 동일하게 대법원이 심판한다.

14번 정답 ②

[해설]

②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5번 정답 ②

[해설]

② 甲은 미성년자 즉, 제한능력자이므로 단독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지만 임금 청구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하는데, 甲은 현재 만18세이므로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③ 甲은 **형사미성년자는 아니지만** 민법상 미성년자이므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 **연령에 따른 미성년자의 형사상 보호**

	개 념	형 별	보호 처분
	만 10세 미만	x	x
촉법 소년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x	o
범죄 소년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	o (형벌 부과시 특례)	o
우범 소년	만 10세 이상~만 19세 미만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	x	o
비행 소년	만 10세 이상~만 19세 미만 우범 소년, 촉법 소년, 범죄 소년을 총칭		

④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의제(간주)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가능하고 혼인 후 이혼하더라도 성년 의제 효과는 유지되므로 甲의 부모는 甲이 부모의 동의 없이 甲명의로 주택을 처분하였다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주의: 성년의제 효과는 민법상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이나 청소년보호법, 선거법 등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6번 정답 ②

[해설]

② 주식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를 통하여 경영에 참가할 수 있지만, 채권보유자는 채권 이자를 받을 뿐이다.

*** 주식과 채권의 차이점과 공통점**

1. 주식

주식이란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니는 기업이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주식은 총발행주식에 대하여 보유 주식의 비율만큼 주식발행기업에 대해 소유권을 지닌다.

주식은 재산적 권리의 순서에 따라 보통주(common stock)와 우선주(preferred stock) 등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주식이라 하면 보통주를 말하며, 보통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경영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배당청구권, 기업청산시 잔여 재산청구권 등을 가진다.

한편 우선주는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 등에 있어서 보통주에 비하여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대신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말한다.

2. 채권

채권이란 비교적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만기일까지 정해진 방법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내용의 일종의 차용증이다. 따라서 채권보유자는 주식보유자처럼 발행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지니지는 않는다. 하지만 통상 채권은 주식에 비해 안정적인 금융자산으로 평가된다.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안채(통화안정증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 등으로 나뉜다.

3.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사용하는 방식

2) 차이점

주식	채권
주식은 상환기간이 없는 자본금(자기자본)	채권은 상환기간이 있는 부채(타인자본)
주주는 회사경영에 참여	채권자는 경영참가가 불가능
주주에게는 이익 실현시 배당금 등의 수익	채권자에게는 정해진 이자와 원금이 지급
주식납입금은 반환요구가 불가	채권은 투자원금과 이자의 반환요구가 가능
주식은 주가의 변동폭이 큼	채권은 가격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음

* 최근에는 '전환사채'처럼 주식의 특성과 채권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증권이 발행되기도 한다.

희석증권(전환증권)은 보통주가 아닌 증권이 전환이나 권리행사 등을 통하여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주식의 1주당 지분비율이 감소하는 증권이다. 기업은 보통주나 우선주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희석증권(전환증권)을 발행하기도 한다. 여기서 희석이란 용어는 보통주가 아닌 증권이 전환이나 권리행사 등을 통하여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주식의 1주당 지분비율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희석증권(전환증권)에는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 주식인수보증권 등이 있다.

17번 정답 ④

[해설]

- ④ A재의 가격이 P2에서 P1으로 하락할 때 판매 수입이 증가했으므로 A재의 수요는 탄력적이다.
- ① B재는 가격이 변화해도 판매 수입이 일정하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다.[단위 탄력적]
- ② A재와 B재는 수요의 법칙을 따르지만 가격이 P2일 때의 판매량은 A재가 B재보다 많은 지 **적은 지 알 수 없다.**
- ③ A재와 B재는 수요의 법칙을 따르므로 가격이 상승하면 A재의 수요량 즉, 판매량은 감소한다.

18번 정답 ②

[해설]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만 증가하려면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수요 증가)과 공급곡선의 우측 이동(공급 증가)이 동일한 크기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보완재의 가격 하락은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수요 증가) 요인,
생산 기술의 발전은 공급곡선의 우측 이동(공급 증가) 요인이므로 맞다.
- ① 대체재의 가격 상승은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수요 증가) 요인이지만,
생산 요소 가격의 상승은 공급곡선의 좌측 이동(공급 감소) 요인이다.
- ③ 소득의 감소는 수요 곡선의 좌측 이동(수요 감소) 요인이고,
공급자 수의 증가는 공급곡선의 우측 이동(공급 증가) 요인이다.
- ④ X재에 대한 선호 감소는 수요 곡선의 좌측 이동(수요 감소) 요인이고,
노동자의 임금 상승은 생산 요소 가격의 상승 요인이므로 공급곡선의 좌측 이동(공급 감소) 요인이다.

19번 정답 ①

[해설]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는 물가 수준의 지표로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수치에 100을 곱한 것이다.

$$\text{GDP 디플레이터} = \frac{\text{명목 GDP}}{\text{실질 GDP}} \times 100$$

명목 GDP는 경상가격(당해연도 가격)으로 산출한 GDP이고,

실질 GDP는 불변가격(기준연도 가격)으로 산출한 GDP이다.

(T+1)년의 명목 GDP를 계산해 보면 (60×250) + (80×90) = 22200원이고,

(T+1)년의 실질 GDP를 계산해 보면 (60×200) + (80×100) = 20000원이다.

이 수치를 GDP 디플레이터 공식에 대입해 보면 $\frac{22200}{20000} \times 100 = 111\%$ 가 나온다.

즉, (T+1)년은 T년에 비해 GDP 디플레이터가 11% 상승하였다.

20번 정답 ④

[해설]

- ㄱ. A국의 실질 GDP는 2015년에 2% 성장했고 2016년도 2% 성장했으므로 2016년의 실질 GDP가 2015년보다 크다.
- ㄴ. B국에서 2014년은 경제 성장률이 0%이므로 2013년과 2014년은 실질 GDP가 같다. B국의 **2013년 실질 GDP를 100이라 가정하면, 2015년은 2014년 대비 2% 성장[102]했고 2016년은 경제 성장률이 0%이므로[102] 2013년보다 2016년이 실질 GDP가 더 많다.**
- ㄷ. B국은 2015년에 2% 성장했고 2016년은 경제 성장률이 0%이므로 실질 GDP는 2015년과 2016년이 같다.
- ㄹ. C국에서 2014년 경제 성장률이 -1%라는 것은 **2013년[100] 대비 2014년의 실질 GDP가 줄었다는 의미[99]이고, 2015년은 2014년 대비 1% 성장[99.99]했으므로 실질 GDP는 2013년이 2015년보다 많다.**